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12월 29일 (다섯째 주일)

성경본문 : 열왕기하 21장 1-9절

설교제목 : “기도하며 미래를 대비하라”

신앙의 척도는 삶의 중심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결국 어떤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를 이어 남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 왕국을 55년 통치해서 왕국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군림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55년의 통치 세월은 유다에서 가장 형편없는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그의 행적을 오늘 본문이 고발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지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섬겼습니다.(왕하21:3) 성전 앞마당에 우상을 세웠습니다.(왕하21:5) 심지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왕하 21:6 21:6) 가나안의 더러운 몰록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무죄한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왕하21:16) 이처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왕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전무후무한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같은 훌륭한 왕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왕하20:1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가 그의 영적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는 벽보고 앉아 기도합니다.(왕하20:2)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왜 빠졌습니까? 히스기야는 해석되지 않는 현실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자신이 살았던 삶과 어색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해석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마음의 축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통곡했습니다.(왕하20:3)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를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축이 내게로 온 증거입니다. 내가 했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결맞는 정도의 결과를 얻는 대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의 예배와 기독교의 예배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종교의 모든 예배는 내가 투자한 만큼의 댓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내가 먼저 받았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통곡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질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생명 연장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는 그 말이 진짜라면 징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왕하20:8) 내가 충분히 이해되어서 믿는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되어서 믿는 것은 나의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믿을만해서, 내가 설득되었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해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마음의 축이 자기 자신에게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까? 왕하20:5-6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주관자, 즉 왕인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주신 이유는 남 유다에 다음 후계자가 없어서 후계자를 세우는 기간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위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실 때 히스기야 개인에게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자신이 어떤 공공성을 가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 연장의 문제를 자기 개인만의 문제로만 생각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앙의 공공성을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근동은 앗수르가 지배하고, 바벨론이 부상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바벨론은 앗수르를 대항하기 위해 주변의 나라들과 포섭합니다. 그때 바벨론이 와서 남 유다의 히스기야를 포섭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고도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이 있다는 태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 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고 말씀합니다.(왕하20:16-18)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당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기 시대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왕하20:19) 자기가 죽을 때는 통곡하며 울부짖던 인간이,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별일이 없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공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자기중심적 신앙의 결과가 르밧세의 시대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중심축이 나에게 있으면 자꾸 불안하고, 삶이 걱정되고, 섭섭하고, 조급해지고, 화가 납니다. 그의 나라와 의보다는 그 외의 것만을 구하며 삽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없이 삽니다. 나만 문제없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공적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중심의 축을 어떻게 두고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르밧세는 어떤 왕이였는가를 이야기해 봅시다.
- 2) 히스기야의 삶에서 마음의 축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신앙의 척도는 삶의 중심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구역원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